

---

第82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6年2月27日(火) 午後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1996年度公報官所管業務報告의件
  2.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 2面

1. 1996年度公報官所管業務報告의件 ... 3面

2.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30面

---

(14時 19分 開議)

○委員長 安順德;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1次 文化教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그리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乙亥年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

건들이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돌이켜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과 변화가 요구되는 丙子年을 맞아 늘 市民과 함께 하시며 市民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委員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行政府 關係 公務員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第15代 國會議員 選舉와 統一韓國의 기틀을 다지며 先進國 건립을 위한 世界化 추진, 그리고 본격 地方化時代에 즈음하여 우리 委員님들과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은 사명감과 책임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月 20日부터 13日間 다녀온 公務 國外出張도 委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委員長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市民의 기대 속에 출범한 第14代 서울市議會가 地方化時代 정착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文化教育委員會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專門委員室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

#### ○ 報告事項

○ 專門委員室 延圭承; 96年 2月 1日 전임 姜永太 主任 후임으로 文化教育 專門委員室에 발령받은 延圭承입니다.

이번 會期 中 議長으로부터 우리 教育委員會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案件現況을 간략히 報告드리겠습니다.

1996年 2月 7日 서울特別市教育監으로부터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이 제출되어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1996年 2月 23日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立博物館開館準備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회부된 案件現況에 대하여 간략히 報告드렸습니다.

---

## 1. 1996年度公報官所管業務報告의件

(14時 23分)

○委員長 安順德;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公報官室 業務計劃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鄭圭台 公報官 나오셔서 96年度 業務計劃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鄭圭台; 公報官 鄭圭台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2月 18日 公報官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常任委員會 일정이 종료되었던 관계로 2個月이 지난 지금에야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安順德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금년 첫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우리 公報官室所管 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公報官室 職員들은 委員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市政運營3個年計劃은 물론이고 서울시 弘報業務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市政을 제대로 市民들에게 알려져 신뢰받는 市政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委員님들께는 금년도 우리 公報官室 業務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丙子年 새해에는 모든 委員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소망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業務報告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公報官室 所屬 幹部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우리 서울市 출입 1진 기자단이 미주쪽과 구주쪽으로 프레스센터 비용으로 海外研修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公報擔當官하고 報道擔當官이 수행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部紹介:弘報擔當官 鄭美洪, 公報企劃係長 徐澈模, 市民輿論係長 金洪國, 出版 管理係長 金榮成, 報道企劃係長 方泰元, 報道1係長 朴台圭, 報道2係長 李炳漢, 弘報企劃係長 金聖洙, 弘報協力係長 俞連植, 弘報運營係長 許權寧)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業務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業務報告에 들어가기 전에 95年度 行政事務監査 受監事項 처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年度 行政事務監査는 95年 11月 21日 文化敎育委員會 會議室에서 受監을 한 바가 있습니다. 受監結課, 改善要求 件數는 17件으로서 是正要求事項이 13件, 그 다음에 建議事項이 4件이었습니다. 그래서 是正要求事項 13件 중에서 완료한 것은 8件이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件입니다. 建議事項에 대해서는 4件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年度 主要業務計劃을 報告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1996年度公報官所管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順德 委員長, 鄭韓植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은 公報官室 96年度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 答辯 순서입니다. 質疑와 答辯은 一括質疑 一括答辯으로 하고 一括質疑 答辯이 끝나면 補充質疑는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의 質疑에 앞서 委員長인 제가 몇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報告書 10쪽 MBC - TV의 시사매거진 2580은 이것이 放送局 자체 내 고정프로죠?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런데 우리가 고정적으로 弘報를 합니까?

○公報官 鄭圭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가 善行公務員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MBC에 매치를 시켜서 매번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출연을 시키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알겠습니다. 그리고 SBS-TV 빙고 9도 마찬가지로입니까?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에 KBS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것은 北韓에 보내는 라디오방송인 모양이죠?
-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혹시 이것이 또 과거의 3, 5, 6共式的 弘報가 아납니까?
- 公報官 鄭圭台; 아납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전혀 달라졌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프로가 있었죠?
- 公報官 鄭圭台; 옛날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어떤 業務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市政弘報 관련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北韓 住民들한테 그 실상을 알리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멸공이니 승공이니 이런 것은 아니죠?
- 公報官 鄭圭台; 그것은 아납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내용.....
- 公報官 鄭圭台;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市政에 관해서 저쪽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방송프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每日 하는 것입니까?
- 公報官 鄭圭台; 이것은 週間放送입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러면 그 자료가 기이 放送된 자료 또는 앞으로 放送될 예정자료 이것이 양이 많습니까?
- 公報官 鄭圭台; 아납니다. 간단 간단한 것입니다.
- 委員長代理 鄭韓植; 한 10回 정도는 간단합니까?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러면 과거 10회, 향후계획 3회까지 있으면 3회, 5회까지 있으면 5회, 10회 이상일 경우에 10회,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리고 아까 報告內容 中에 "Living In Seoul"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公報官 所管입니까, 文化局 所管입니까?

○公報官 鄭圭台; 國際交流課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報告書에 지금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公報官 鄭圭台; 이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Budget Summary"하는 것은 우리 企劃管理室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iving In Seoul"이것은 觀光課에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만드는 내용을 여기다 종합해 놓은 것입니다, 영자지로 만드는 것.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리고 今年부터는 市廳 전체에서 發刊되는 모든 弘報物은 우리 公報官室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公報官室이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各 部署마다 따로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弘報物에 대해서는 弘報物 統合 審議豫算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 홍보물 통합 審議 豫算이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또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에서 審議를 해야 되기 때문에 公報官室을 어떤 형태로인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税金納付 弘報 이

런 한 장짜리 간단한 내용은 또 각 局에 그런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豫算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대상인 弘報物은 公報官室을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아주 간단한 弘報物은 지금 원래대로 그냥 각 局에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今年부터 처음으로 상업광고가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鄭韓植; TV광고죠?

○公報官 鄭圭台; 물론 이것이 今年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옛날에 한번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을 상업광고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今年度에 어떤 내용을 TV광고를 하는 것이 좋고, 어떤 내용은 예를 들면 전광판에 공익광고를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 또는 전동차 안에는 어떤 내용을 디자인해서 弘報를 하고, 또 電鐵驛의 와이드컬러에는 어떤 내용을 弘報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확정되면 말하자면 CF로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컬러로 넣을 것은 넣고, 또 전동차 안에 弘報할 것은 弘報하고, 전광판으로 표출할 것은 표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弘報를 해 나갑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동차 광고에 豫算이 책정되어 있는데 製作費입니까, 아니면 廣告料입니까?

○公報官 鄭圭台; 製作費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製作費죠. 전동차는 서울地下鐵公社기 때문에 돈을 안 줍니까?

○公報官 鄭圭台; 占用料는 안 주고 우리가 디자인하는 그 비

용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報告書 內容을 즉 보고 公報官의 報告 內容을 들은 바 우리 서울市 자체에 弘報媒體들이 많이 있죠?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뿐만 아니라 弘報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地下鐵 역사내 그것은 우리가 無料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데 하는데 無料입니까?

○公報官 鄭圭台; 아까 말씀드린 地下鐵驛의 와이드컬러 5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우리가 無料로 확보를 했고요, 그 외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委員長代理 鄭韓植; 아니, 廣告料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占用料를 내는 것입니까?

○公報官 鄭圭台; 占用料를 내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전동차 내에는 안 내도 됩니까?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鄭韓植; 거기가 公企業인데 돈을 안 받고 無料로 해 준다고요? 公企業인데 無料로 해 줍니까?

○公報官 鄭圭台; 그런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전동차 안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1輛當 2個 내지 4個 그것은 우리 서울市에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 외의 여타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 활용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公報官 鄭圭台; 그런데 여타 필요한 공간은 사실상 그것

이 전부 公企業이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鄭韓植; 아니, 비단 地下鐵 역사, 또는 전동차 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활용공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돈 안 들이고 弘報를 많이 하자는 얘기죠.

○公報官 鄭圭台; 아무튼 지금 현재로 어떤 공간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委員會代理 鄭韓植;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공간을 좀.....

○公報官 鄭圭台; 예를 들면 여기 우리 市廳에서 市議會에 가는 地下道 그 안에도 弘報.....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러한 공간들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公報官 鄭圭台; 지금 현재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鄭韓植; 또 지금 市廳에서 條例整備를 추진하고 있죠?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우리 公報官室에 관계되는 條例가 몇 가지가 있죠?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그러면 우리 公報官室에서 파견이 되어서 그 條例 整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公報官室에 관계되는 條例를 整備하는 어떤 要員이 따로 있습니까?

○公報官 鄭圭台; 파견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各 課別로 되

어 있는 條例를 말하자면 機構改編을 해서 機構名이 맞지 않는다는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아니, 그런데 그 要員 몇 사람이 서울시條例를 전부 다 一讀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公報官 鄭圭台; 各 條例마다 擔當하는 職員이 있고, 擔當하는 係長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公報官室에 관계되는 條例를 擔當하는 職員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여요.

○公報官 鄭圭台; 그 말씀이 아니고 말하자면 條例가 3종류가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條例는 어떤 職員한테 해당이 되고, 어떤 條例는 어떤 職員한테 해당이 되고 이렇게 業務 擔當者가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公報官室에 관계되는 條例를 整備하는 要員을 다음 臨時會 때 우리 委員會 委員님들하고 懇談會든 常任委 출석이든 좋습니다, 한 번 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내용을 條例를 整備해 나갈지 개략적으로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鄭圭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끝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公報官室의 업무계획을 일견하기에 市長의 동향이나 또는 어떤 市의 施策, 弘報, 또는 광고만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민 계도 쪽은 상당히 약하지 않습니까?

○公報官 鄭圭台; 그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弘報媒體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일대일의 어떤 계도가 아니고 언론사

라든가, 또는 잡지, 또는 TV를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외의 市民意識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든가, 또는 交通에 관한 意識을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지금 社會振興課에서 별도의 또 그런 計劃들을 하고, 시민운동에 동참하는 단체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건전한 시민운동단체가 市民意識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제가 CI작업과 관련지어서 늘 생각되는 것인데 弘報건 廣告건 돈을 많이 들여서 弘報, 廣告 그 자체에는 성공을 하는데 弘報의 목적, 廣告의 목적달성에는 실패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CI개발을 했다, CI개발 그 자체는 運營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CI개발, 運營에서 거뒀들이려고 했던 그 목적달성은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常任委員會에서 公報官께 그런 質疑를 했었습니다. 시민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質疑를 했더니 擔當公務員께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시민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자율적 참여 이런 시대 아니냐, 이런 答辯을 듣게 했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상업광고를 하고 또 弘報를 하고 하는데 예컨대 TV에 좋은 광고를 냈다 그러면 광고 그 자체로는 성공을 한단 말입니다. 광고의 성공하고 광고 목적의 성공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서울市民들이 서울市民으로서 어떤 서울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한 業務計劃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公報官室 하면 얼핏 記者들 상대하는 데, 이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해 보고 싶습

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鄭圭台;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徐在浣 委員 質疑해 주세요.

○徐在浣 委員; 徐在浣 委員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今年 4月 11日이면 總選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서울시 公報官에서는 4月 11日을 앞두고 公明選舉에 대한 弘報計劃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어떠한 方法으로 할 것인지 그 計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25個 區廳이 다 自治制가 되어서 나름대로 各 區廳에도 弘報物이 나갑니다. 간행물이 나가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단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25個 區廳과 그 간행물이 나가는데 연계해서 어떤 한 코너를 넣는다든지 해서 서울시의 전체적인 것이 25個 區廳이 간행물이 나갈 때 연계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李載震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震 委員; 李載震 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刊行物審議委員會를 運營하면서 그 委員會의 運營은 企劃管理室長과 公報官, 課長 5名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運營을 하고 있고, 또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 運營을 하면서 公報官 및 課長 외에 大學教授 등 專門家 했는데 教授는 몇 분이고, 專門家는 몇 명이나 되며, 또한 審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화보랄지 책자

랄지 팸플릿이랄지 영상물이 발간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月로 어떠한 규정을 뒤서 審議委員會를 구성을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실질적으로 심의내용을, 여기 業務報告에 보면 여러 가지로 불요불급한 弘報物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制度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것이 정말 잘 運營할 수 있는 그러한 制度인지 이것을 答辯해 주시고, 또한 기록으로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韓植 幹事. 孫馥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孫馥 ;또 質疑하실 委員님?

林靜枝 委員 質疑해 주세요.

○林靜枝 委員; 林靜枝 委員입니다.

11쪽에 있는 내용으로서 海外弘報 자료와 또 외국어 홍보책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외국어로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까? 서울을 외국어로 표시한 지도.

○公報官 鄭圭台; 네.

○林靜枝 委員;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梁東錡 委員님 質問해 주세요.

○梁東錡 委員; 梁東錡 委員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公報官께서 새로 오신 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뵈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公報官께서 하실 일이 지난번 會期 中에도 많은 指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들이 항상 이야기하던 것이 첫째는 서울시 公報官들이 하는 일이 물론 서울시에 주관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議會의 議員들의 활동사항이 너무 빈약하게 지금 弘報가 되고 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

항입니다.

여기에 輿論調査를 1,000名에서 2,000名씩 단위로 확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輿論調査의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國民弘報委員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市民弘報委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弘報委員의 선출은 各市·道知事 및 公報處長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는 市民弘報委員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李載震 委員도 말씀했는데 弘報物製作審議委員은 금년도에 增員 3名하고 交替 1名인데 지금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 13名은 언제 위촉을 받은 분들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새로이 文民政府가 들어서고 文民市長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이 弘報委員을 전체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公報官 자리라는 자리가 서울시의 쉬었다 가는 자리 그렇게 되어가지고 業務 과약 좀 하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公報官께서는 저희 文化教育委員會 委員들과의 좀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피차간에 市弘報와도 市議會의 弘報도 결들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質問하실 委員님, 李善宰 委員님 .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95年度 行政事務監査 受監事項 처리한 公文의 5페이지, 輿論調査 범위를 靑少年 또는 教育問題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教育問題는 教育廳이 다뤄야 할 사안이니까 거기와 합의해서 결정하시겠다 이

했는데 사실 靑少年問題나 敎育問題가 市民이 關係 안 되는 분이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業務를 敎育廳에서 다루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더라도 이것은 서울市廳하고 긴밀한 유대關係를 가지시고 의논을 하셔서 사실 이런 문제를 敎育廳에서 지금 輿論調査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자료를 이쪽에서 넘겨받아서 활용도 하고 이래줘야 되는데 敎育廳은 敎育廳 이고 그것은 우리하고 關係없다, 市廳은 우리 市廳 하는 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靑少年問題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敎育廳이 하는 일이다, 말하자면 靑少年問題, 敎育問題 그러면 그것은 學校가 하는 것이다, 社會나 家庭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關係가 되시든 여하간 의논들 하셔서 靑少年問題와 敎育問題에 대한 輿論調査도 하셔서, 또 市廳이 보는 견해가 있다면 敎育廳에 권고말씀도 좀 드리고, 또 더 위 機關에 한다면 그쪽에 다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나누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公報官室 豫算이 41%인가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좀 활발한 활동을 하셔서 금년에는 우리 서울市가 하는 일을 우리 서울市民이 다 잘 알고 또 알아야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해 줘서 정말 서울市政이 좀 밝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李善宰 委員님 質問內容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輿論調査 문제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해왔는데 教育廳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관련된 사항인데 一般市民들이 봤을 때 서울市政 하면 住宅 또는 交通, 環境 이런 것만 죽 따져가지고 輿論調査를 했는데 이제 市에서 教育問題를 다룰 수 없다고 그래서 市에서 아마 몇 번 教育廳에다 공문을 띄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반응이 안와서 내가 教育監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公報官 業務所管에서 教育을 한번 더 보겠다고 公報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教育에 관한 輿論調査를 어떠한 모델로 輿論調査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案에 대해서는 教育廳이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한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教育廳에서 회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몇 차례에 걸쳐서 教育廳에 말을 했는데 아마 아직까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孫馥;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협조사항 그러니까 물론 教育에 관해서는 市廳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 千百萬 市民의 여러 가지 안위를 위해서는 저희들 委員들이 봤을 때는 教育이 가장 市政의 관심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輿論調査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했는데 教育廳에서도 輿論調査를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어떤 고정적인 輿論調査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教育政策의 업무에 관련된 그 사람들에게만 해 보니까 일방적인 여론밖에 형성이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輿論調査의 모델을 教育廳에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

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지금 企劃弘報 방송프로 확보에 보면 우리 交通放送 있지 않습니까? 地方自治團體로서는 유일하게 지방네트워크 TBS放送을 우리 市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2時 5分에서 50分까지, 이것밖에 없죠? 지금 현재 매주에?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孫馥;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交通放送 聽取率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交通放送 들음으로 인해서 交通의 어떤 政策에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만 交通管理室에서 이것이 운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모니터들 통해서 아니면 제도적인 交通關係者들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을 갖다가 보고만 해 주는 것밖에 불과하지 않다고요. 또 거기에 보면 交通放送 내용이 전 프로그램의 과연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公報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물론 서울市政이 交通放送을 통해,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는 放送이니까 交通放送을 통해서라도 市政을 알릴 수 있는 그 弘報方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週日에 한 프로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孫馥; 그래서 公報官께서는 政策會議에 나가는 하나의 任員이시죠. 그렇죠?

○公報官 鄭圭台; 네.

○委員長代理 孫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交通放送을 公報官 所屬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중

은 하나의 案을 제시해 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亨根 委員님.

○金亨根 委員; 金亨根 委員입니다.

業務報告書 중에서 弘報 刊行物의 製作 豫算 統合管理라는 내용을 보면서 진일보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市政이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市議會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弘報物에 대해서만 제작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市에서 나오는 各種 刊行物은 弘報物 외에도 各種 統計資料라든지 아니면 教育資料 文化資料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모든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弘報物만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여기 視聽覺 弘報物하고 印刷物 몇 종씩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하고 종류하고를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보는 무슨 종류가 있고 포스터는 무슨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발간 예정이라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各種 文化資料라든지 그런 책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 포함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는 公報官에서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刊行物審議委員會가 있고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刊行物審議委員會가 각

중 책자를 모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弘報物은 앞에 얘기했던 印刷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刊行物審議委員會가 있으면 그 통계를 잡고 관리를 하기는 수월치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弘報物이라도 제작 통합된다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목록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면,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 鄭韓植 委員입니다.

새해 들어 첫 公報官室의 業務報告를 받으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質疑를 마치고자 합니다. 公報官께 質疑하겠습니다.

당 報告書가 本委員會 報告의 전부입니까, 전부가 아닙니까?

○公報官 鄭圭台; 公報官室의 대부분의 업무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鄭韓植 委員; 이것이 報告의 모두죠?

○公報官 鄭圭台; 네, 모두입니다.

○鄭韓植 委員; 이것은 本委員이 느끼기에는 業務報告라기보다는 그냥 타이틀만 적어놓은 하나의 종이에 글씨 써놓은 것으로 밖에 안 느껴집니다. 향후 어떠한 報告라 할지라도 主要報告 내용 이것은 주요내용 밖에 안 되죠. 지금 이 기구표에 보면 各課에 各係가 있습니다. 係別로 月別 業務推進計劃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요되는 豫算, 그러한 자세한 부속 主要業務計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만이 그것

이 진짜 業務報告지 이것은 業務報告가 아니라고 봅니다.

公報官,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죠?

○公報官 鄭圭台;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보면 전체적인 主要業務計劃 내용을 가지고 이 큰 타이틀에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다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금년 내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報告된 내용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단위 업무별로 전부 다 다시 세분되거든요.

○鄭韓植 委員; 그러니까 각 係別로 다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公報官 鄭圭台; 그것은 業務計劃을 추진하다보면 2월에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5월에 가서 될 수 있는 일도 있고.....

○鄭韓植 委員; 아니, 年初에 그런 계획들이 다 나오죠.

○公報官 鄭圭台; 네, 細部推進計劃을 만들죠.

○鄭韓植 委員; 이것은 물론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좀더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鄭圭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公報官께서는 우리 質問한 내용에 대해서 答辯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公報官 鄭圭台; 구체적인 어떤 수치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 20分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한 10分만 하죠.

○公報官 鄭圭台;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孫馥; 10分만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25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鄭韓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계속해서 公報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鄭圭台;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韓植 幹事님께서 質疑하신 弘報할 수 있는 각 공간을 전부 파악해 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關聯局에다 전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해서 調査가 되는 대로 별도 書面으로 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條例改正 擔當職員 명단과 條例 整備方向에 대해서도 별도로 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室 業務計劃에 관해서 시민 계도성 내용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광고는 성공을 하고 광고의 목적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로 광고의 목적달성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一般企業體의 경우에는 그것이 판매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측정이 됩니다만 서울市の 弘報의 경우에는 상당히 계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輿論調査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몰랐던 것을 그런 광고를

함으로써 알게 되었다든가 그런 輿論調査를 통해서 한번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徐在浣 委員님께서 4月 11日 總選과 관련하여 公明選舉에 대한 弘報計劃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일단 選舉 主務局이 內務局입니다. 그래서 內務局에서 公明選舉 관련 자료도 만들고 또 弘報計劃도 수립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公報官室에 협조를 해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협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25個 各 區廳의 홍보물과 市의 홍보물 내용을 서로 연계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民選 以前에는 사실상 市의 홍보물에 區廳 홍보물이 연계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民選이 되다 보니까 區廳은 區廳 나름대로 區廳長 立場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겨우 하나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반회보에 우리 市政에 대해서 조금 넣어 주는 정도인데 그것도 또 옛날보다는 상당히 축소해서 1면은 아예 區廳弘報가 먼저 들어가고 중간에 조금 끼어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른 홍보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일괄해서 추진할 業務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가 되도록 區廳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李載震 委員님께서 刊行物審議委員會와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의 專門家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물으셨는데 8분 중에서 教授는 2분이고, 外部 專門家가 6분입니

다. 또 製作할 때마다 會議를 하느냐, 아니면 月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定期會議는 分期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分期別로 홍보물을 발간할 것을 모아서 會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分期 1회 定期會議를 하다 보면 급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수시로 會議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95年度에는 14회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月 1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審議內容에 대해서 不要不急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制度로 운영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審議 保留를 하거나 또는 棄却을 하거나, 또는 修正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일일이 다 記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記錄內容은 昨年度 運營實績을 종합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林靜枝 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梁東錡 委員님께서 서울시 公報官室의 일이 서울시政을 주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서울시議會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홍보가 빈약하다 그렇게 指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今年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서울시청 뉴스 3면 하나를 완전히 議會欄으로 고정을 해서 우선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週 1회 서울뉴스와 정보라는 10分짜리 VTR을 製作을 합니다. 그래서 議會가 열리는 기간에는 그 뉴스와 정보에다 常任委員會 활동까지를 포함을 해서 일정시간을 할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선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輿論調查에 관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선 電話 輿論調査는 일단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 버립니다. 1,000名이든 2,000名이든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요, 面接調査인 경우에는 各 區 人口를 봐서 인구비례, 그 다음에 성별, 연령구조 이런 것을 전부 통계적으로 비례로 해서 그것도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輿論調査를 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國民弘報 委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國民弘報 委員은 93年度 이전에는 國政弘報 委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國政弘報 委員으로 즉 활동을 하다가 93年度부터 명칭을 國民弘報 委員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國民弘報 委員은 지금 市·道知事 추천에 의해서 公報處長官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16분의 國民弘報 委員이 있습니다. 昨年까지는 18분이었는데 이것도 모하게 公報處에서 TO제로 운영을 합니다.

各 市·道別로 서울은 16名, 京畿道는 12名 이런 식으로 TO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것인데 TO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昨年度에 18분 중에서 외부로 이사 가신 분들,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활동이 미흡하신 분들 이런 분들 5분을 제외하고, 13분은 재위촉을 했고요, 나머지 3분은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弘報物製作審議 委員 13名을 언제 위촉했고. 民選市長 이후에 어떻게 추가 위촉을 했고, 앞으로 전원 교체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弘報物製作審議 委員은 91年度부터 위촉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위촉날짜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91年度부터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95年度에는 1명을 교체하고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지금 外部 委員 13분이 모두 各界 專門家로서 우리 서울시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에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지 않아도 우리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의 활동은 수준급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公報官이 좀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市議會도 잘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李善宰 委員님께서 輿論調查의 중요성, 또 靑少年 教育問題에 대한 輿論調查의 중요성과 그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市 教育廳과 연계해서 어떻게 輿論調查를 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그래서 上級機關에 建議할 것은 建議를 하고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이 부분은 아까 孫馥 委員님께서 제 答辯 겸해서 質疑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教育廳에 여러 번 教育問題에 관해서 어떤 방향으로 輿論調查를 하고, 質問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번 公文으로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회신이 안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서울시 물론 輿論調查의 要員들이 教育에 관한 輿論調查를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教育廳으로 하여금 外部 專門機關에 輿論調查를 한번 하도록 종용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외에 孫馥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教育廳과 다시 한 번 협조하는 문제, 그 다음에 教育廳의 輿論調查 결과, 이런 것을 상호 정보교환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李善宰 委員님께서 豫算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활발한 활동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公報官室이 職制도 확대 개편되었고, 또 弘報擔當官室이 新設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활용하지 못하던 각종 방송이라든가 잡지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PC통신 같이 활용해서 어떻게 市政을 더 전문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研究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孫馥 委員; 교육청에 公文을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 本委員이라도 것을 조사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드릴테니까, 그것도 輿論調査 對象도 初等學校, 中·高等學校 學父母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까지 내다 드릴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公報官 鄭圭台;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孫委員님도 양해해 주실 것은 과부분에 관한 한 저희들도 사실 우리 輿論調査 專門要員들이 어떤 아이টে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누구한테 諮問만 받으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事由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말하자면 권한이 그쪽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孫馥 委員; 자기들이 만날 틀에 박힌 것만 이렇게 하니까 市民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것을 찾지를 못하는 것이예요.

○公報官 鄭圭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公報官 입장에서 그것을 했다고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孫馥 委員; 이번에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

까.....

○公報官 鄭圭台; 그리고 기획홍보 방송프로 확보에 관해서 交通放送에 매주 화요일 고정프로그램 14時 05分부터 50分까지 그것밖에 확보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정으로 확보한 것은 사실은 그것 있습니다. 그것 있고, 그 외에 서울야곡이라든가 또는 每 時間마다 생활뉴스를 제공을 합니다. 생활뉴스에는 市政에 관해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고정프로도 추가로 10分짜리가 됐든 프로그램 개편을 할 때 한번 확보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孫馥 委員; 公報官室에서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죠?

○公報官 鄭圭台; 네, 그렇습니다.

○孫馥 委員; 그것이 交通放送 프로그램에 몇 % 정도 해당이 됩니까?

○公報官 鄭圭台; 交通放送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 交通放送 아까 몇 % 차지하느냐 문제는 저희들 고정적으로 확보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뉴스에서 우리 市政을 홍보하는 내용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대개 하루에 몇 分 정도 할애가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孫馥 委員; 그것 파악하셔서 여기다 報告할 것이 아니고 政策會議 때 建議를 한번 해보세요.

○公報官 鄭圭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交通管理室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公報官室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 문제는 아까도 業務報告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실제로 交通放送이 교통에 관한 방송을 50%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公報官로에서 그것을 맡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도의 政策的인 판단이 뒤따라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내부적으로 협의도 한번 해 보고 市 自體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신중하게 檢討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金亨根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각하고 인쇄물 이름하고 종류 이것을 명기해서 언제 發刊 예정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지적이셨는데 弘報物하고 刊行物의 차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弘報物은 弘報物製作審議委員會 또는 刊行物은 刊行物審議委員會 그렇게 정해놨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한 6,70%는 양쪽 委員會를 다 거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刊行物이라 하더라도 또 표지 디자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거치는데, 그래서 주로 刊行物審議委員會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有料로 판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刊行物로서 이것을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전부 파악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弘報物은 말하자면 刊行物을 포함한 弘報物입니다.

弘報物에 대해서는 주로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외형을 주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刊行物하고 弘報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臺帳도 만들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鄭韓植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基本主要業務計劃의 細部推進計劃, 이것은 다음 會期 때까지 細部業務

推進計劃을 만들어서 月別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報告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마치고 1996年度 公報官室 業務計劃報告의 件을 종결하겠습니다.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2.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53分)

○委員長代理 鄭韓植;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公報官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鄭圭台;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關한 提案說明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市에서 지난 1月 15日 職制改編을 했습니다. 그래서 職制改編에 따라서 刊行物審議委員會의 委員 등의 명칭이 전부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을 改正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는 豫算擔當官을 豫算總括擔當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公報1擔當官을 公報擔當官으로, 公報行政係長을 出版管理係長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말씀드리면 關係法規는 地方自治法이고 豫算 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新·舊 조문대비표는 3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5번 檢討意見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1996年 1月 15日 시행된 職制改編에 따라 刊行物審議委員會 委員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豫算擔當官을 豫算總括擔當官으로 명칭 변경하고, 公報1擔當官을 公報擔當官으로, 公報行政係長을 出版管理係長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刊行物 審議委員 등의 명칭을 96年 1月 15日 개편된 職制에 맞게改正하려는 것이며 條例 整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本 改正條例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鄭韓植; 계속해서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서울特別市長이 제출한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原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刊行物審議및普及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代理 鄭韓植; 이것으로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  
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56分 散會)

---

○出席委員

安順德 鄭韓植 孫馥 徐在浣

梁東錡 劉大運 李善宰 李載震

林鍾化 許光泰 金亨根 魚潤慶

林靜枝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公報官 鄭圭台